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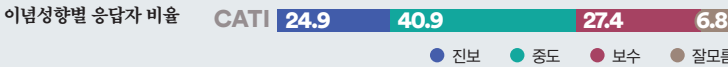
제110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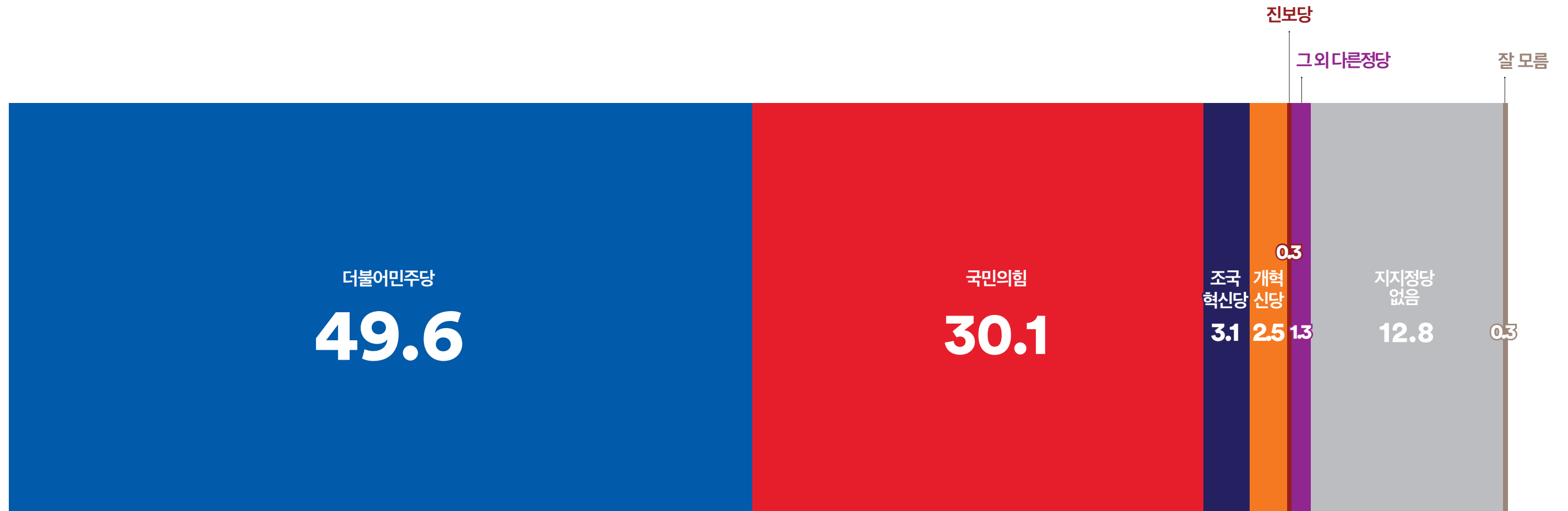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비율	성별	<div>지역</div>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2	50.1	496	49.5	0.99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0	49.9	506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3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6	15.6	153	15.3	0.98	
응답률	14.4% [총 통화시도 6,978명]			30대	153	15.3	150	15.0	0.98	
조사기간	2025년 4월 11일 ~ 4월 12일(2일간)			40대	172	17.2	173	17.3	1.01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9	196	19.6	0.98	
				60대	174	17.4	178	17.8	1.02	
				70세 이상	148	14.8	152	15.2	1.03	
			지역	서울	189	18.9	187	18.7	0.99	
				인천·경기	325	32.4	324	32.3	1.00	
				대전·세종·충청	108	10.8	109	10.9	1.01	
				광주·전라	97	9.7	96	9.6	0.99	
				대구·경북	95	9.5	98	9.8	1.03	
				부산·울산·경남	149	14.9	147	14.7	0.99	
				강원·제주	39	3.9	41	4.1	1.05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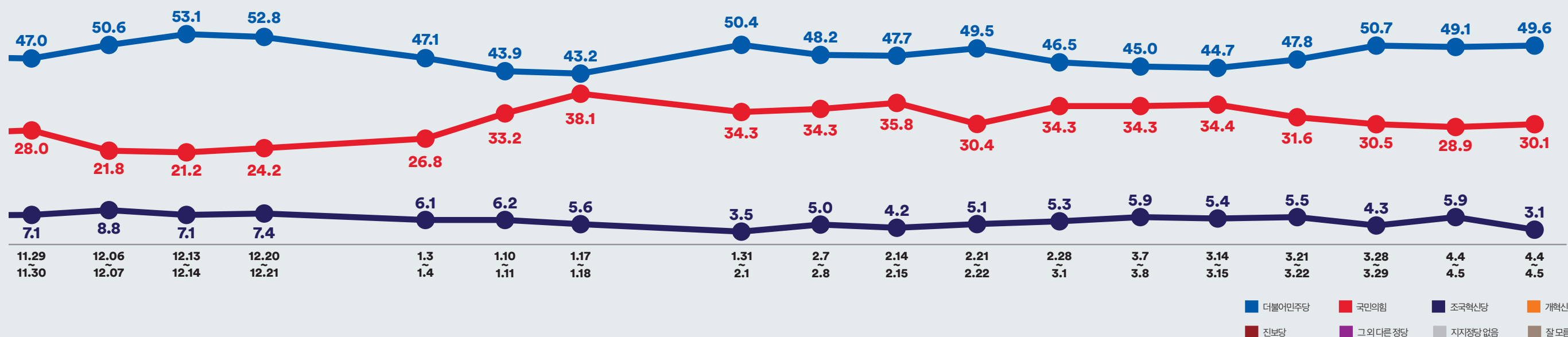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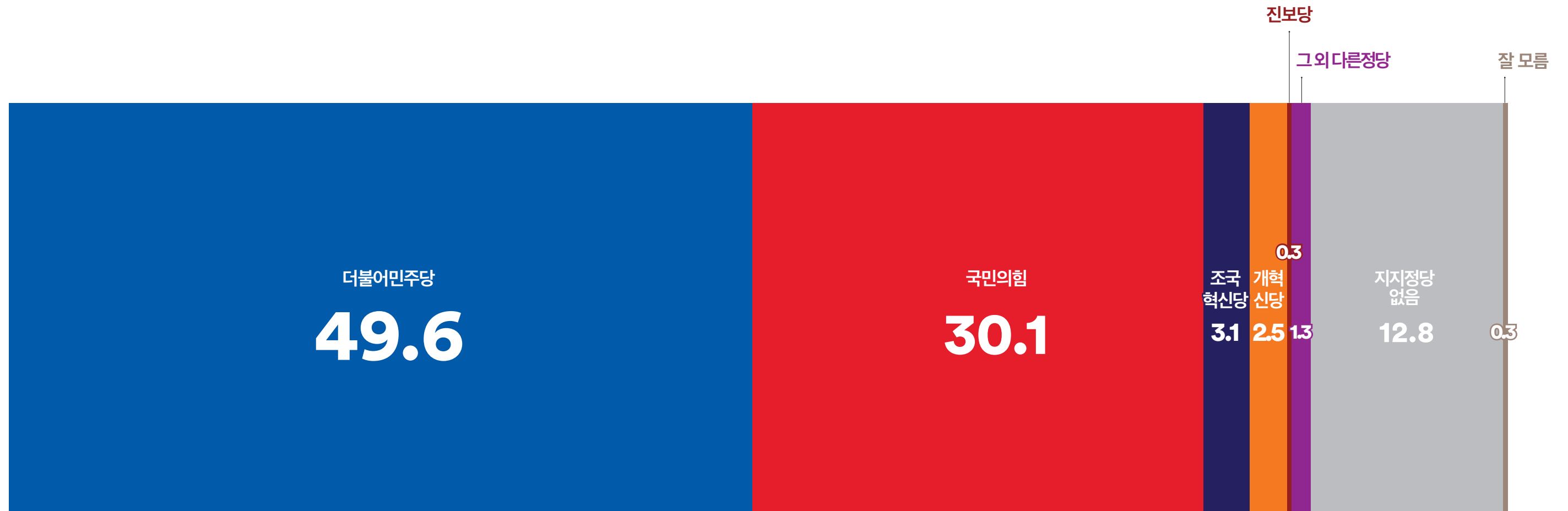


109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5%p 상승, '국민의힘' 1.2%p 상승, '조국혁신당' 2.8%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9.5%p (지난 조사: 20.2%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22.6%p (지난 조사: 26.1%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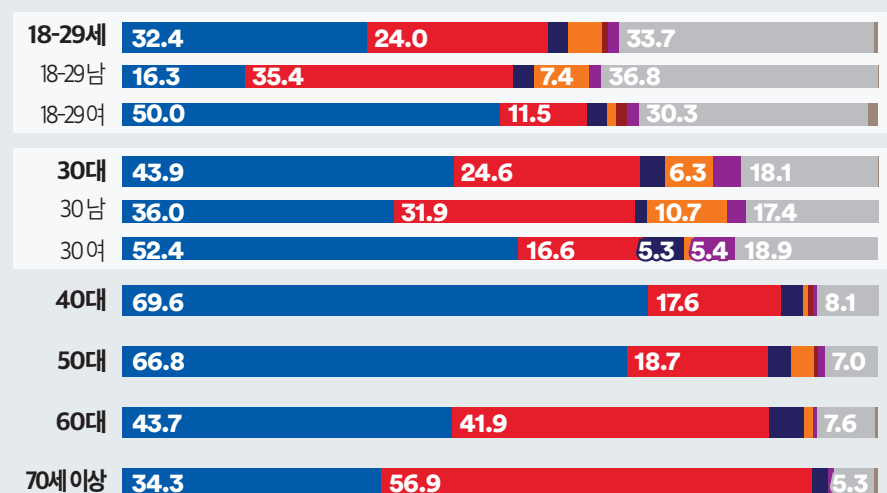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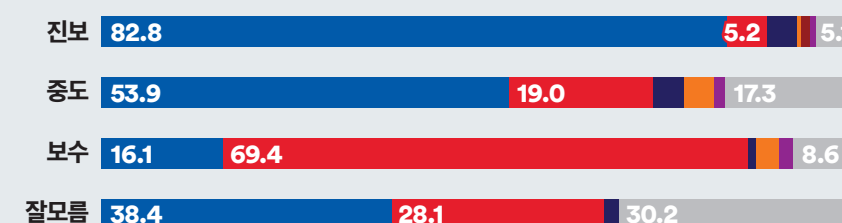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3.9%, '국민의힘' 19.0%, '조국혁신당' 4.2%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34.9%p(지난 조사: 33.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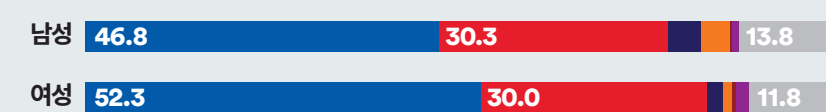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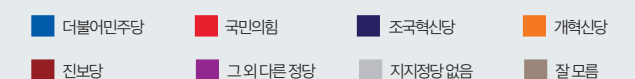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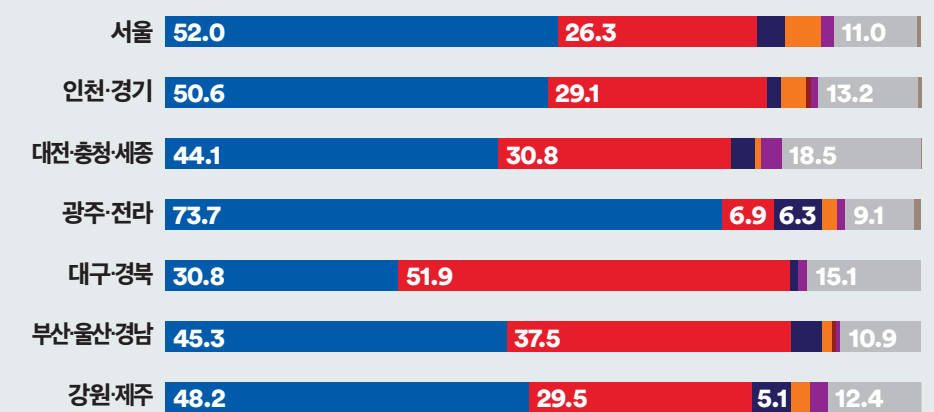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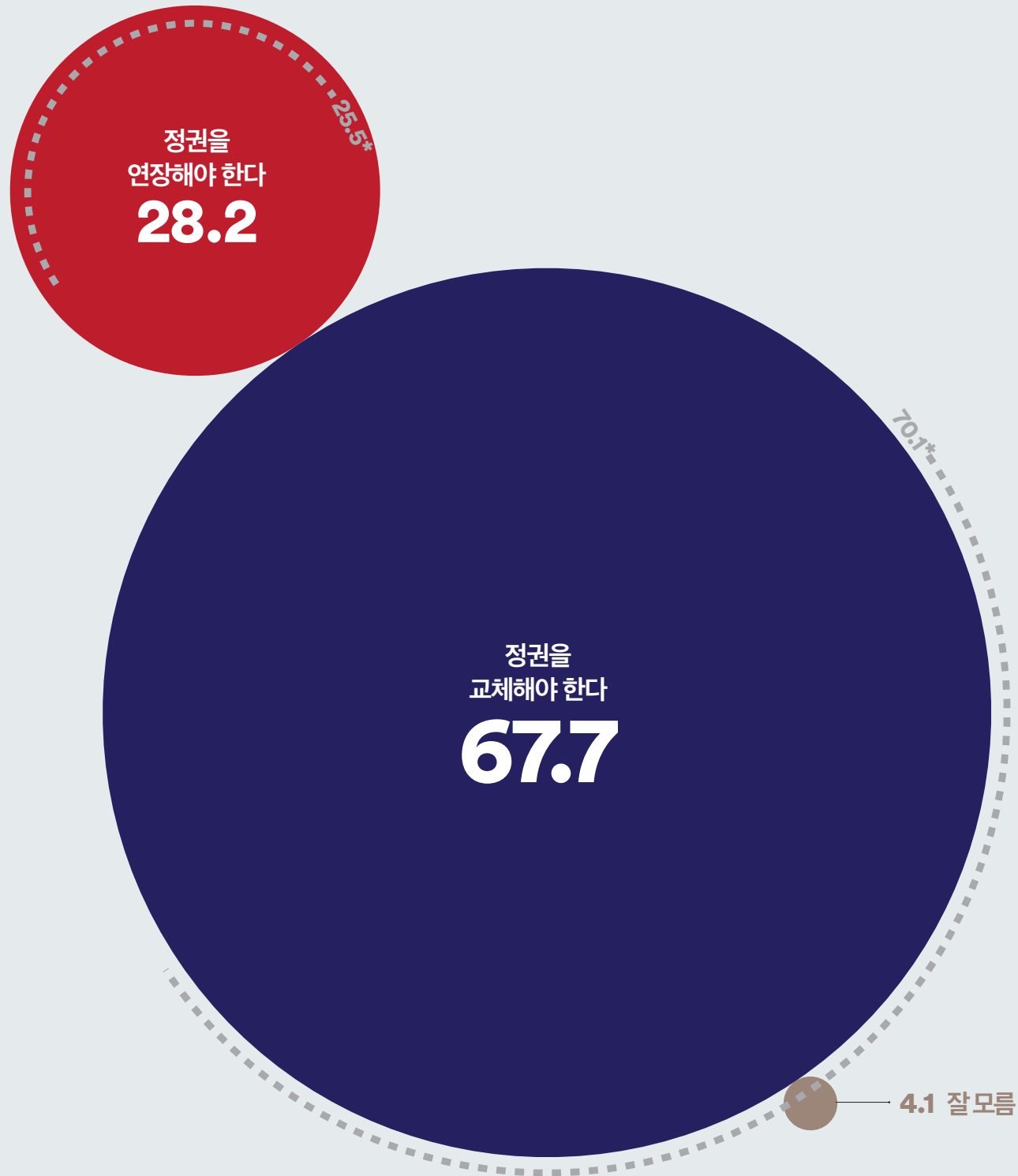
성별



권역



Q.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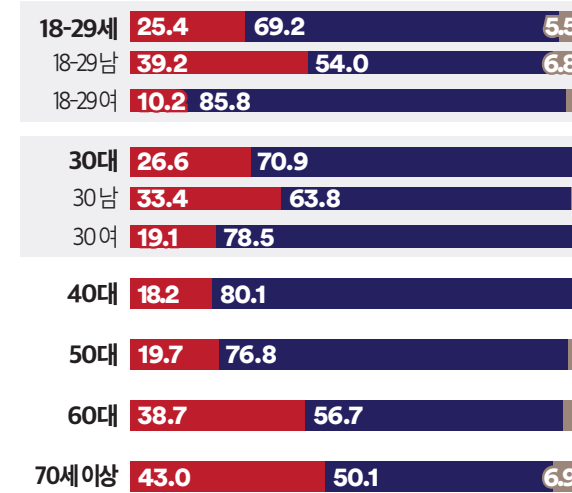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9.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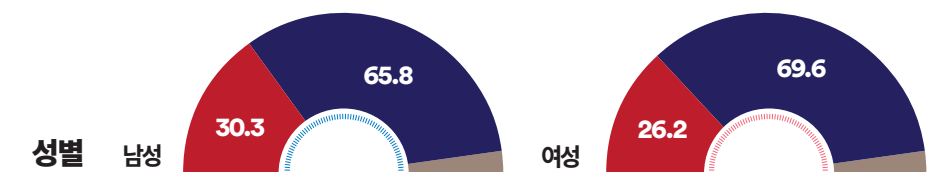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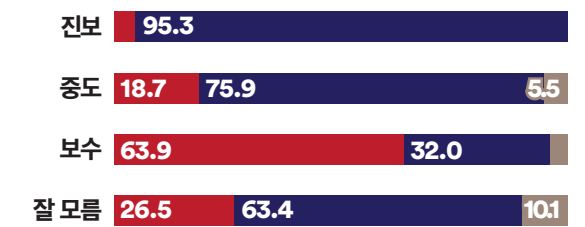
모든 연령층과 모든 권역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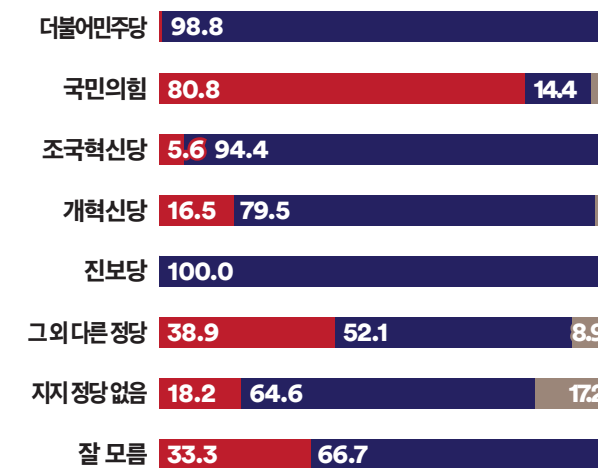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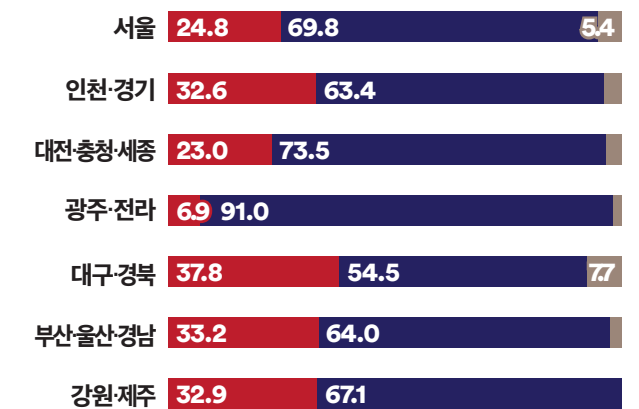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9차 정례조사 문항 수치 비교

정권연장 정권교체 잘 모름

Q.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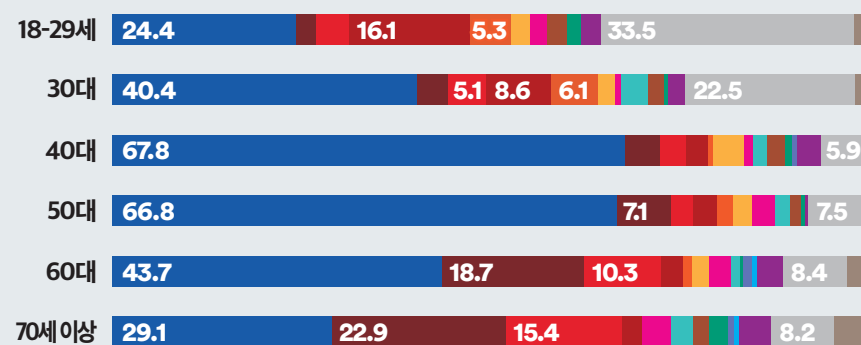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나은지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김문수' 대비 압도적 우세(격차: 36.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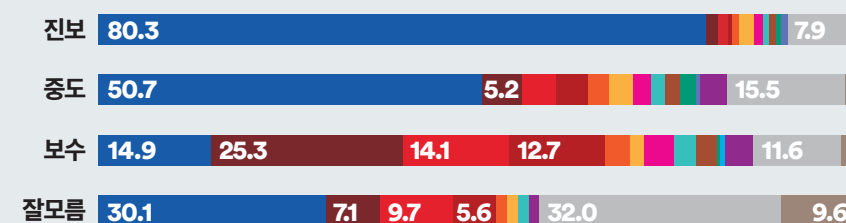
남성층에서는 '이재명' 46.3%, '없다' 11.4%, '김문수' 11.3%, '홍준표' 7.5%, '한동훈' 6.6% 순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47.1%, '없다' 16.0%, '김문수' 8.8%, '한동훈' 7.0% 순

모든 권역 및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에서는 '없다' 33.5%, '이재명' 24.4%, '홍준표' 16.1%, '이준석' 5.3% 순
18-29세 남성층에서는 '없다' 26.5%, '홍준표' 20.2%, '이재명' 16.5%, '이준석' 10.1%, '김문수' 5.1% 순
18-29세 여성층에서는 '없다' 41.2%, '이재명' 33.1%, '홍준표' 11.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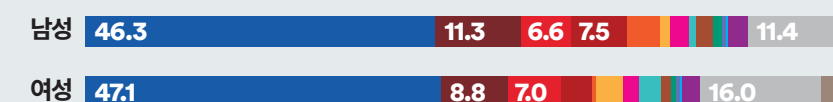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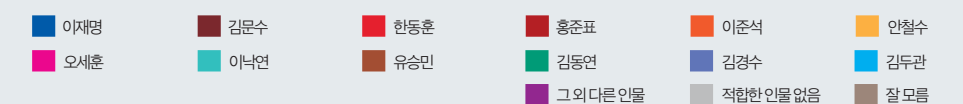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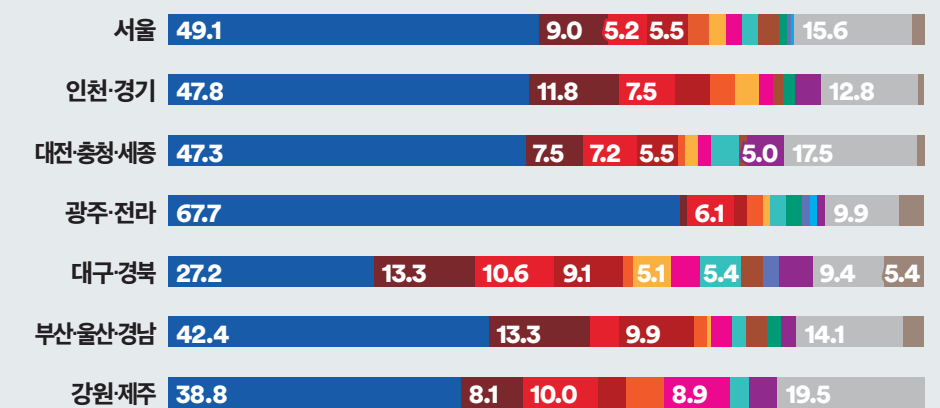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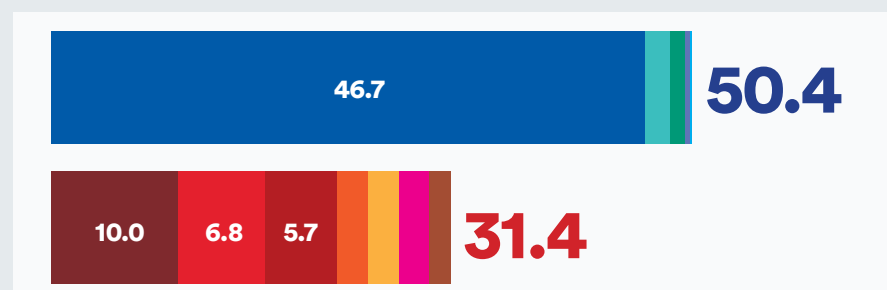
Q.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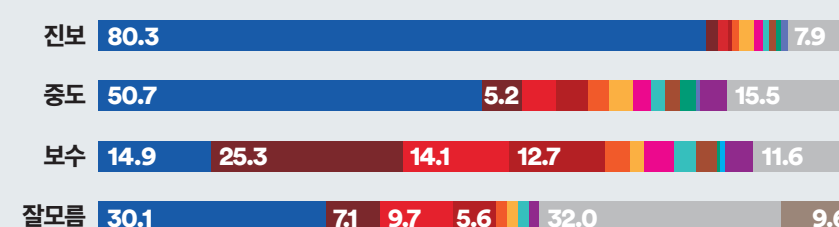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나은지 묻는 CATI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6.0%, ‘없다’ 6.4%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29.2%, ‘한동훈’ 19.1%, ‘홍준표’ 15.2%, ‘없다’ 9.4%, ‘그 외 다른인물’ 6.9%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7.9%, ‘없다’ 20.9%, ‘이준석’ 6.3% 순

진보층은 ‘이재명’ 80.3%, ‘없다’ 7.9%순
중도층은 ‘이재명’ 50.7%, ‘없다’ 15.5%, ‘김문수’ 5.2% 순
보수층은 ‘김문수’ 25.3%, ‘이재명’ 14.9%, ‘한동훈’ 14.1%, ‘홍준표’ 12.7%, ‘없다’ 11.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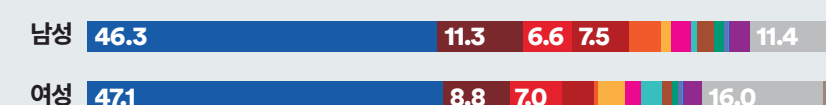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 vs 국민의힘 계열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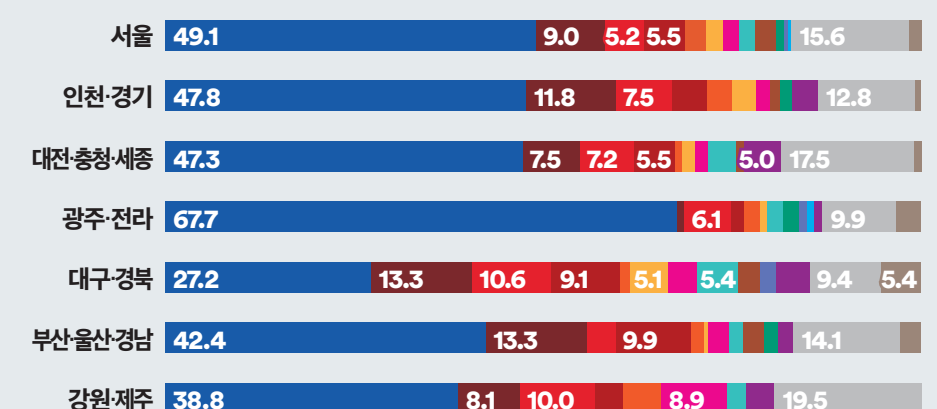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 현재 정당이 다른 후보의 경우, 과거 소속정당을 고려하여 이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Q.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한대행도
할 수 있는 일이다
42.6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현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현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정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 중 대통령 몫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설명]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 담화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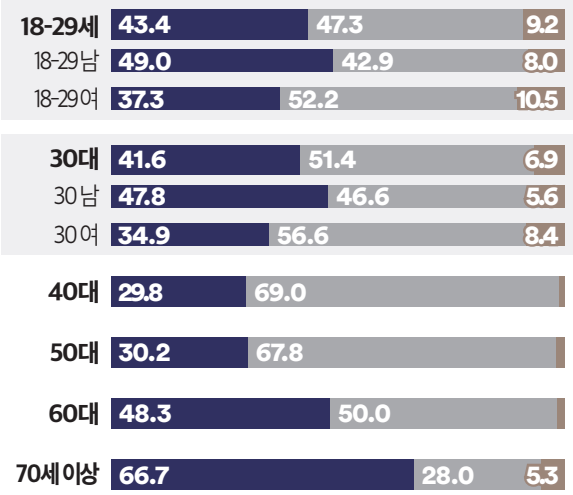
권한대행은
할 수 없는 일이다
53.2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
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각 등 행정부 내의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2022년, 헌법학, 성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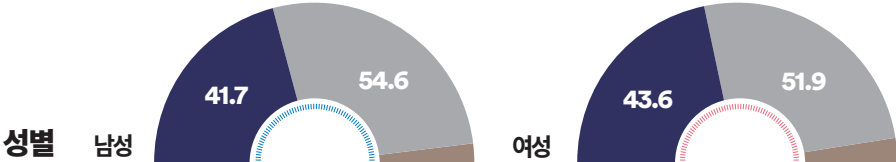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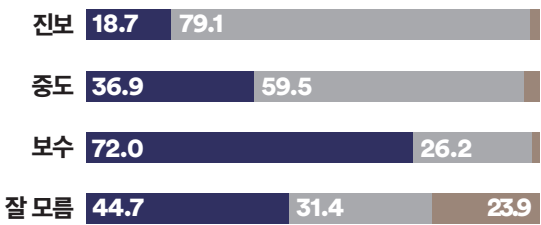
4.1 잘 모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권한 대행은 할 수 없는 일’이란 응답(응답 간 격차: 10.6%p)
30-50대 응답층과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권한 대행은 할 수 없는 일’이란 응답 앞서거나 우세
18-29세 응답층의 경우 남성층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여성층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앞섬
70세 이상 응답층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권한대행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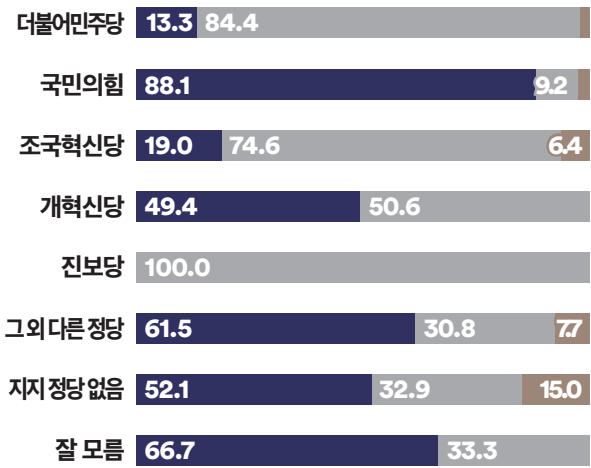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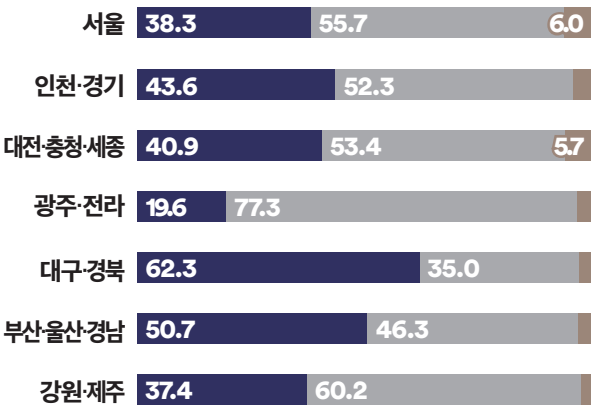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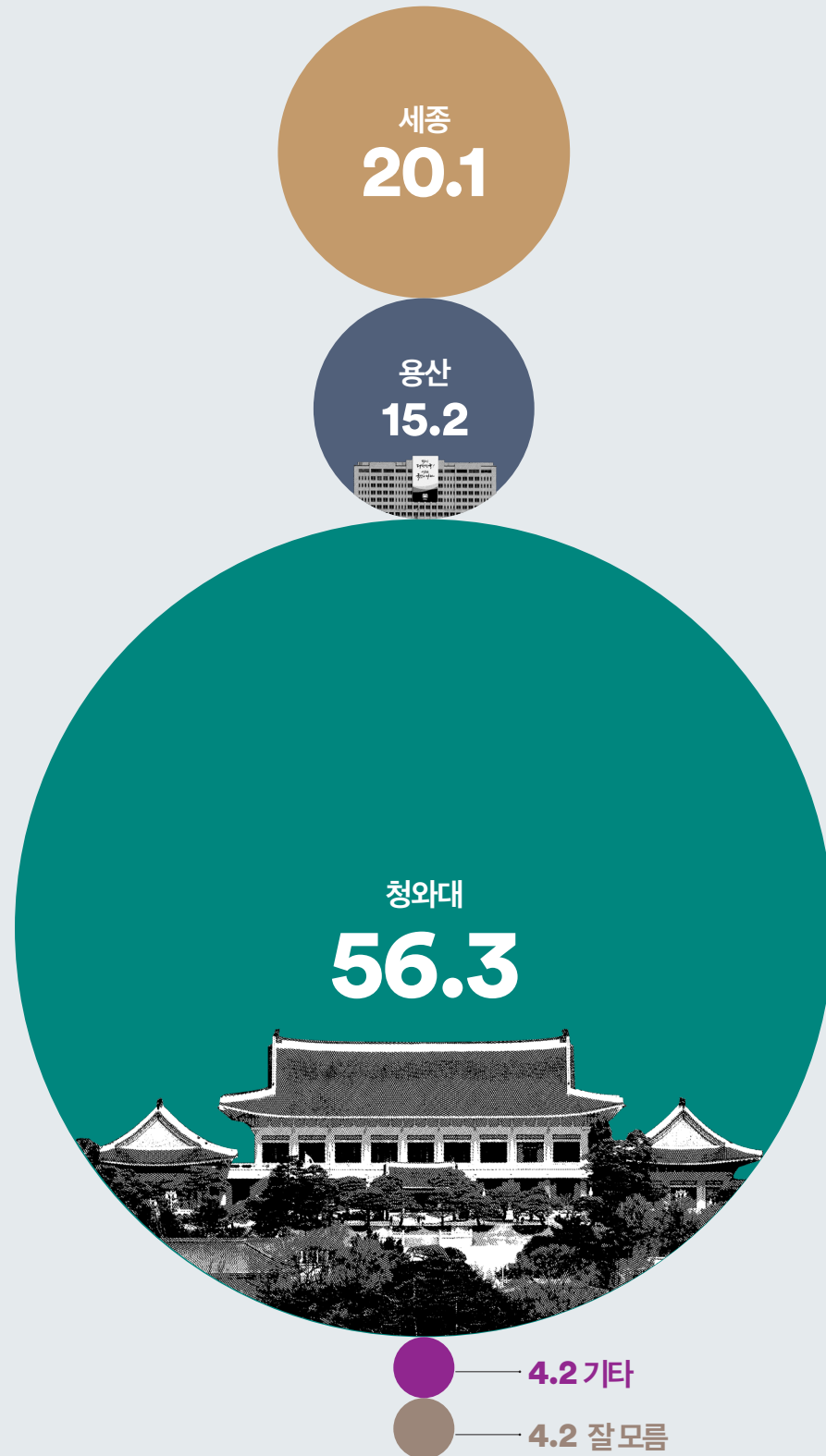


권역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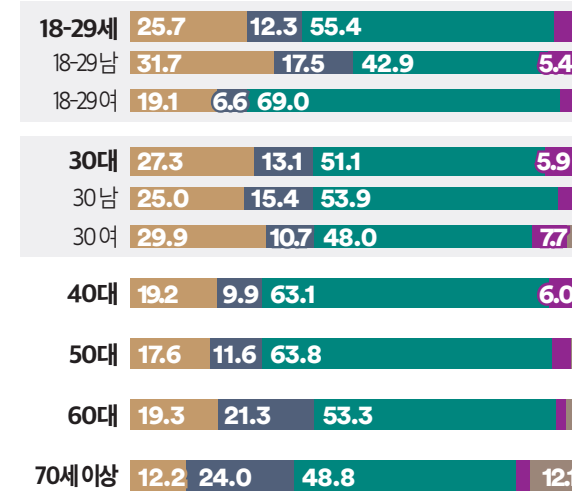
Q. 다음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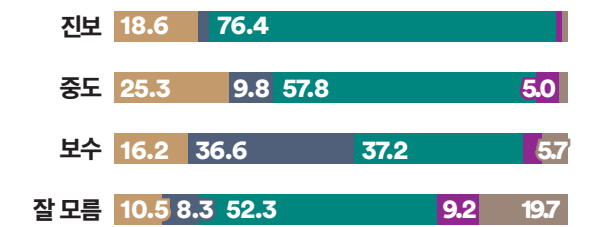
다음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청와대 > 세종 > 용산 응답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다음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선택함
모든 연령, 모든 권역에서 '청와대'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용산'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용산 42.2%, 청와대 32.4%) 보수층은 '용산'과 '청와대'가 비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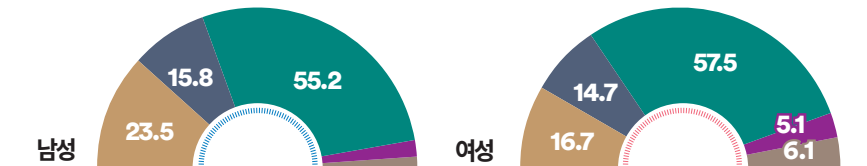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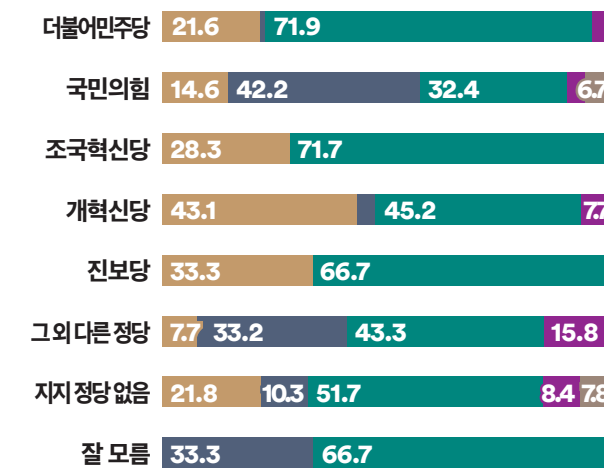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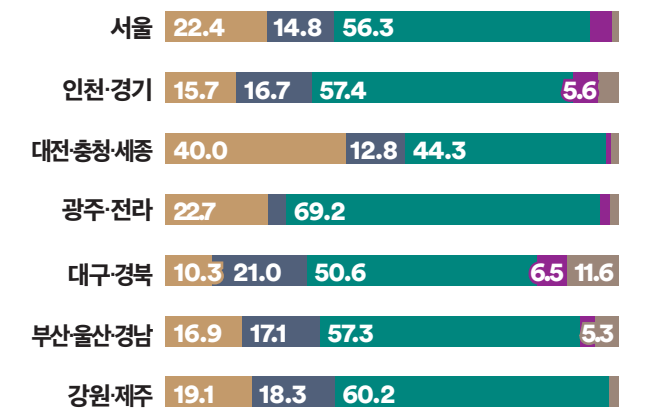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권역



세종 용산 청와대 기타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4_02
